

'보그너 MBN 여자오픈' 내일 양평서 개최

'프로킬러' 최혜진, 아마추어 피날레...김세영·이미향 등 해외파 가세

'프로 잡는 아마추어' 최혜진(18·학산여고)이 프로 데뷔전을 앞두고 아마추어 신분으로 피날레를 무대에 선다. 최혜진은 18일부터 사흘간 경기 양평 더스타후 골프장(파71·6711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최혜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7월에는 KLPGA 투어 '조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아마추어 선수로는 5년 만에 우승하며 풀시드를 확보했다.

1999년생으로 만 18세가 되는 오는 23일 프로 자격을 얻는 최혜진은 이날 말 열리는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마추어 신분으로는 마지막으로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프로 언니들과 격돌한다.

최혜진이 어떤 성적으로 화려하게 피날레 무대를 장식할지 관심이 가운데 올 시즌 LPGA 무대에서 1승씩을 거두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도 국내 무대에 출전한다.

올 시즌 '로레나 오초아 인베티아셔널'에서 우승하며 매치펀에 등극한 김세영(24·미래에셋)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 챔피언' 이미향(24·KB금융그룹)이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지난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마지막 무대에 서는 최혜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 출전하는 김세영(사진왼쪽)과 이미향(사진오른쪽)



출전에 고배를 마신 박인비(29·KB금융그룹)를 비롯해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의 국내 대회 우승 사례가 드문 만큼 김세영과 이미향이 해외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 시즌 '로레나 오초아 인베티아셔널'에서 우승하며 매치펀에 등극한 김세영(24·미래에셋)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 챔피언' 이미향(24·KB금융그룹)이 우승에 도전한다.

이미향은 "좋은 기억도 있고 아쉬운 기억도 있어서 올해 다시 출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세영 언니도 함께 출전에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며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캐나다로 건너가 후반기 레이스까지 상승세를 이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최혜진과 해외파 모두 우승을 위해서는 KLPGA 투어 강자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올 시즌 3승과 함께 상금랭킹 선두인 김지현(26·한화)과 2승을 거두고 대상포인트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연(21·토

니모리)이 하반기 첫 우승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지현은 이 대회에서 2015년과 2016년 모두 강세를 보였던 터라 이번 주를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주최 측은 막판 치열한 우승 경쟁과 함께 짜릿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종일 3라운드 파5인 18번 홀의 전장을 크게 열어 투 언이 가능하도록 세팅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호날두·메시·부폰, UEFA 올해의 선수 3파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이 유럽 축구 연맹(UEFA)이 선정한 2016~2017시즌 최우수 선수 후보에 올랐다.

UEFA는 16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UE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로 호날두, 메시, 부폰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들은 80명의 코치와 55명의 기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메시와 호날두는 이미 두 번씩 UE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수상자는 호날두다.

UEFA 올해의 선수 수상자도 이들 감독과 기자단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역시 호날두의 수상이 유력하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의 2016~201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이끌었다.

메시는 프리메라리가 득점왕과 바르셀로나의 코파 델 레이 우승을 이끌었고, 부폰은 팀의 세리에A 리그 우승과 유벤투스의 UCL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수상자는 오는 25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2강 본선 조 추첨사에서 발표된다.

김민근기자

돌아온 추신수, 디트로이트전 1안타 1타점 신고

가벼운 붕증을 털어내고 돌아온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와 타점을 신고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4에서 0.253(391타수 99안타)로 조금 낮아졌다.

추신수는 이날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

3일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1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 저스틴 벌랜더의 시속 92.8마일(약 149km)짜리 초구 직구를 노려쳤지만, 2루수 정면으로 굴러가면서 병살타로 연결됐다.

1-1로 맞선 3회 2사 1루 상황에서도 추신수는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벌랜더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으나 6구째 커브에 헛스윙을 해 삼진을 당했다.

팀이 5-3으로 앞선 7회 2사 3루 상황에서 4번째 타석을 맞았다. 3루에 있던 루그레트 오도어가 보크로 홈을 밟아 텍사스는 6-3으로 앞섰고 추신수는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 그대로 이날이 끝났다.

텍사스가 9-3까지 달아난 8회 2사 만루의 찬스에서 추신수는 유격수 방면에 내야안타를 쳐 3루에 있던 마이크 나폴리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2루 주자 오도어도 홈까지 질주했지만, 아웃당하면서 그대로 이날은 마무리됐다.

텍사스는 홈런 세 방을 포함해 11안타를 몰아쳐 디트로이트를 10-4로 물리쳤다.

김민근기자

류현진, 20일 디트로이트 상대로 시즌 5승 재도전

올 시즌 18경기 등판 4승 6패 평균자책점 3.63 기록

류현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류현진(30·LA 다저스)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시즌 5승 재도전에 나선다.

'스포츠크 1A' 등 현지 언론의 16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19~21일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3연전 선발 투수로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로버츠 감독은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3연전에서 리치 힐, 류현진, 마에다 겐다 순서로 선발 등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20일 오전 5시5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5이닝 7피안타(1홈런) 3실점을 기록하고 승패없이 물러난 류현진은 일주일 만에 시즌 5승에 재도전한다.

올 시즌 18경기에 등판해 96%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4승 6패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이 2013년 빅리그에 데뷔한 이후 디트로이트를 상대한 것은 딱 한 번 뿐이다. 2014년 7월9일 디트로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2⅓이닝 동안 10개의 안타와 2개의 볼넷을 내주고 7실점으로 무너져 패전의 멍에를 썼다.

이번 등판은 치열한 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류현진에게 중요한 무대다.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로 유니폼을 갈

아입은 일본인 투수 다쓰밧수 유를 비롯해 알렉스 우드, 리치 힐 등이 다저스 선발 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여기에 허리 부상 중인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복귀가 임박했다.

류현진은 마에다와 5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과 이달 7일 뉴욕 메츠전에서 2경기 연속 70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여 눈도장을 찍는 듯 했지만 13일 샌디에이고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마에다도 2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14일 샌디에이고전에서는 5⅓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흔들렸다.

류현진과 마에다 모두 앞으로 2, 3차례 등판 결과에 따라 선발 잔류가 결정될 것



망이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